

노동자 생활글의 노동문학사적 맥락*

김 성 환**

차 례

- | | |
|-----------------|--------------------------|
| 1. 노동자 생활글의 공간 | 4. 1990년대 생활글의 변화: 전태일 문 |
| 2. 노동자 생활글과 문학성 | 학상과 생활글 |
| 3. 생활글의 문학적 확장 | 5.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자 생활글의 |
| 1) 세련된 글쓰기와 노동자 | 새로운 가능성 |
| 2) 여공의 소설쓰기 | |

국문초록

노동자 생활글은 1980년대 노동운동의 범주 속에서 실천된 노동자 글쓰기의 한 유형이다. 생활글은 1970년대 노동자 수기의 성과를 이어받은 것으로, 1980년대 생활글 모음집으로 묶여 나오며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 노동자 생활글은 노동자의 주체성과 계급성을 형상화하는 노동자 문학의 중요한 양식이었으며, 엘리트 중심의 문학담론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의 관심은 본격 노동소설에 맞춰져 노동자 생활글의 문학성에 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765).

** 인제대학교 강사.

다.

1990년대 이후 생활글의 공간은 축소되고 문학성의 논의도 중단된 듯이 보인다. 이때 생활글은 10여 년의 짧은 시기에 표출된 글쓰기 운동의 한 양태로 고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 생활글이 단독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문학의 전체 공간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확장해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생활글은 소박한 글쓰기라는 자기규정에 묶여 있지만, 노동자 주체성과 계급성이라는 지향점에 따라 노동문학으로서 다양한 실천양상으로 전개된다. 즉 노동자 생활글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세련된 글쓰기로 이어지기도 하며, 본격적인 소설 양식과 접속하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글쓰기에 대한 자각과 문학 양식과의 적극적인 교섭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생활글은 노동문학의 지평을 개척할 수 있었으며, 학술장에서 생애사 서술을 통해 노동자 리터러시(literacy)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한 근원이 되었다.

1990년대 노동운동이 약화되면서 노동자 생활글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 부문이 그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은 이미 대중매체와의 경합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매체의 영향력 속에서 정형화되고 대중적인 글쓰기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 생활글은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비정형의 양식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생활글은 노동문학의 범주 속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하는 능동적인 문예 양식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노동자 생활글, 노동자 글쓰기, 노동문학, 노동소설, 『장벽』, 『불신시대』, 전태일 문학상, 노동자 리터러시, 노동자 역사 쓰기

1. 노동자 생활글의 공간

노동자 글쓰기는 1980년대 문학사의 화두이다. 비전문가인 노동자의 문필활동은 문학 개념과 주체에 관한 논의를 촉발했고, 기존 문학사의 빈 공간을 조명했으며, 이를 통해 문학론의 외연을 확대했다. 특히 이념과 운동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개념이 강렬하게 돌출된 1980년대 문학 연구에서 노동자 글쓰기는 문학성 논의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논의의 초점이 텍스트의 발굴과 그 미학적 가능성에 맞춰진 만큼 노동자 문학에 내포된 문학 개념과 주체성의 문제는 주목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다.¹⁾ 물론 문학 개념과 주체 문제는 1980년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근대 문학 수립 이후부터 문학 개념은 항시 저항과 마주했다. 고급한 이념과 지식인, 그리고 견고한 문단은 제도로서의 문학의 필요조건으로 생각되었지만, 중심의 논리는 그 외부와 길항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식민지 문학사의 대중화론에서도 알 수 있듯, 기성의 문학 제도는 정체성의 물음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적 대상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도 문학의 범주와 주체를 둘러싼 문제는 다시금 불거진바, 대중매체에 등장한 수기, 논픽션 등의 텍스트가 문학 수용에서 적지 않은 좌절을 차지하며 대중적 문예 양식에 관한 논의를 촉발한 것이다.²⁾

저널리즘 글쓰기(journalistic writings)는 공모라는 제도를 통해 작가

1) 장성규, 「1980년대 노동자 문집과 서발턴의 자기 재현 전략」,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12 및 장성규,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의 전략들: 『노동해방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학회, 2014.12 등의 연구는 1980년대 노동자 문학성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미학적 시도와 그 성과를 분석한 성과이다.

2) 특히 『신동아』 등의 대중매체가 공모의 형식으로 다양한 글쓰기를 발굴·소개한 이후, 새로운 양식의 글쓰기는 자발적인 글쓰기의 참여뿐만 아니라 매체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가 1965년도에 시작된 이래, 논픽션·수기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리얼리티 재현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는다.

와 작품의 대중성을 획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텍스트의 사회적 함의를 충실히 형성했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전태일의 일기를 들 수 있을 터인데, 그의 일기가 공적인 매체를 통해 알려진 후, 각 계층의 사회적 참여가 촉발된 사례는 개인의 글쓰기가 어떻게 공적 가치를 획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대화』가 발굴한 석정남, 유동우 등의 노동자 글쓰기 또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외에도 여러 형태로 ‘노동자’, ‘근로자’, ‘여공’ 등의 수기와 르포, 논픽션이 발표되며 저널리즘 글쓰기는 1970년대 독서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노동자들의 글쓰기/글읽기의 공간이 문학과 접친다는 사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 문단 중심의 문학제도는 그 외부의 문학성을 거부했기에,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글쓰기를 문학 논의에 포함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렇지만 둘 사이의 접점은 이미 내재해 있었다고 할 만하다. 본격 문학과 대중적 저널리즘 글쓰기는 이미 텍스트 수용의 지평에서는 혼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기록에는 여공, 혹은 문학소녀의 취향과 노동자 계급성이 충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³⁾ 두 문학성의 조우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이다. 이때부터 노동자들은 글쓰기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양식으로서의 문학성에 대한 도전적인 자각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정치적 지형의 급변⁴⁾과 더불어 새로운 문학의 요구가 노동자의 글쓰기를

3) 석정남의 일기(『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11)에는 ‘헛세, 하이네, 윌리엄 워즈워드’ 등의 고전적 문학 감수성이 농후하게 드러나지만, 일기가 활자화되는 과정에서 기성 시인이 추천한 “황석영, 고은, 강은교 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온다.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54-55쪽) 이와 더불어 홍희담의 『깃발』(『창작과비평』, 1988, 봄)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추정되는 소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적 장면이다. 이는 1970년대 말 노동자의 문학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4) 1980년대 정치권력의 변동은 기존 문단체제를 무력화시켰으며, 그 결과 무크지와 같은 급진적 시도가 펼쳐졌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8.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동서인문학』 45, 계명대학교 인문과학

호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동자의 일상적 글쓰기가 1970년대 논픽션, 수기 등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노동자 계급성이라는 주제로 확장한 결과, 다양한 글쓰기의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 양식을 통해 노동자 글쓰기는 문학성 논의의 중심 주제로 접근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문제적인 노동자들은 1980년대에도 글쓰기를 이어나갔고, 스스로를 문학적 주체로 인식하면서 문학성을 둘러싼 각축이 불거졌다. 이 시차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석정남의 글쓰기이다. 그는 1975년 노동운동의 경험을, 한 번은 1976년 일기로, 또 한 번은 1984년 장편 수기 『공장의 불빛』으로 재현했다. 두 텍스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학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이다. 애초 일기에서는 문학에 미달하는 자신의 소양에 대한 자괴감이 드러났다면 장편수기에서는 과거 자신의 문학적 취향과 노동자 문학성에 대한 전망을 중첩시킨다.⁵⁾ 물론 이 전망은 기존의 엘리트 문학과 노동자 문학 사이의 해결되지 않는 간극과 갈등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두 문학의 격차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비문학적 주체의 글쓰기가 새로운 문학성의 접속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기에서 장편수기로의 도약은 1980년대의 글 쓰는 노동자들이 경험한 문학적 체험이다. 그들은 ‘생활글’이라는 이름으로 일상과 체험을 의식적으로 재현했다. 여기에는 기존의 장르 규범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당대의 정치/경제적 담론장 속에 포함될 때 그것이 문학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혹은 문학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획득한다. 노동자들의 생활글 쓰기가 문학성과 문학적 주체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

연구소, 2011.12 참조.

- 5) 여공문학에서 두 문학성의 충돌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갈등의 맥락을 내포한다. 이에 관해서는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37, 한국근대문학회, 2018.4 및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 문학적 유토피아: 1970~19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 본 노동자 장편 수기 연구』,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6 등의 논의를 참조.

것이 1980년대 문학사의 한 분기점이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는 1980년대 생활글을 포함한 노동자 글쓰기의 구조와 논리를 문학사의 지평 속에서 규명하는 작업이다.

2. 노동자 생활글과 문학성

노동자 생활글을 논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생활글은 임의적인 명칭이다. 일정한 형식 없이 일상의 체험과 감상을 기록한 글이지만 삶의 리얼리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글이라는 명칭이 고안된 듯하다. 그러나 생활글을 하나의 양식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조직과 같은 외적 요건과 더불어 생산과정의 구조적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구조적 요소란 글쓰기로서 요구되는 내적(미적)인 요소와 글쓰기의 주체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의 논의의 대상인 생활글의 범주는 매우 폭넓다. 생활글은 일기, 편지 등을 포함하는 소박한 수기류에 흔히 붙여지는 명칭으로, 이른바 ‘비문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시나 장편(掌篇)소설에 포함될 법한 문학작품까지 아우르기도 한다. 1980년대 대표적인 노동자 생활글 모음집인 『우리가 우리에게』⁶⁾,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⁷⁾는 각각 시와 산문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전자는 시 양식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편이어서 수록 글은 일반적인 시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가 없다. 그러나 후자는 특별한 양식적 인식 없이 시로 규정되지 않는 산문을 엮은 것으로, 양식적 비정형성이 두드러진다.⁸⁾

6) 김태숙 외, 『우리가 우리에게』, 돌베개, 1985.

7)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8) 그 외에도 “근로자들의 글모음”(나보순 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돌베개, 1983), “생활담”(한운수 편,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청년사, 1979) 등이 생활글과 유사한 표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시와 산문이 특별한 범주 구

노동자 생활글의 양식적 특성은 문학과 등가의 것은 아니다. 이는 르포로 불리는 보고문학, 기록문학과 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 소설가는 자신의 장편 르포의 서문에는 “처음으로 문학이 아닌 책을 썼다”⁹⁾ 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발언에는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 즉 르포의 구분 기준이 허구성이라는 점이 암시된 동시에, 둘 다 전문 문필가에 의한 글쓰기임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내포되어 있다. 즉 르포는 수기나 수필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글쓰기에 비해 더 진지하고 전문적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기나 수필과 전문적 글쓰기인 르포와의 구분은 뚜렷한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1980년대 생활글은 르포와 더불어 기존 문학과 차별성을 근거로 새로운 문학성의 근거로 활용된다. 생활글은 아마추어의 비정형의 문필 활동 혹은 ‘비문학’ 글쓰기이지만 전문가에 의한 예술적 문예 양식이 아니라 노동문학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수렴되었다. 이는 1980년대 말에 시작한 전태일 문학상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전태일 문학상은 기존의 시, 소설 양식 외에도 생활글/기록문 부문을 할애했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르포와 더불어 생활글이라 불릴 만한 글들이 포함된다. 이는 본격 문학과 아마추어 문필활동이 상보적으로 접점을 이루며 1980년대 노동문학이라는 틀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생활글은 1960년대 이후 저널리즘 글쓰기가 지향한 대중

분 없이 배열되어 있다. 노동자 생활글의 비정형성은 오히려 인접 예술장르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후술할 노동자의 소설 쓰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운동의 효과를 위해 만화가 적극 고려되기도 한다. 그에 비하면 르포, 논픽션과 유사한 보고/기록문은 생활글이라는 명칭을 활용하지 않는다. 『8시간 노동을 위하여』의 경우 “노동자들의 이야기”(순점순, 『8시간 노동을 위하여』, 풀빛, 1984, 11쪽)이라 말했지만, 소박한 수기류가 아니라 투쟁 과정의 보고, 선언서 등의 기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9) 공지영, 『의자놀이』, 휴머니스트, 2012, 5쪽.

적 교양주의와도 성격을 달리한다. 대중매체의 중요한 콘텐츠인 논픽션, 르포, 수기 등은 문학 장르와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그 지향점도 문학적이다.¹⁰⁾ 그러나 1980년대 노동자의 글쓰기는 기존 문학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장석남의 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불타는 눈물』이 장편수기 『공장의 불빛』으로 전환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식인에 의해 ‘발굴’된 여공의 일기가 장편수기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 주체성의 자각과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공의 글쓰기는 노동문학이 될 수 있다. 물론 『공장의 불빛』은 완성도나 노동운동의 이념의 깊이가 소박한 생활글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렇지만 『공장의 불빛』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 수기와 함께 계열체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노동자 문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계열체를 넓은 의미의 생활글로 규정한다면, 노동자 생활글이란 1980년대의 특수성을 표상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¹¹⁾

이 글에서 소박한 생활글과 뚜렷이 구분되는 장편수기를 논의하는 이유는 생활글의 확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생활글의 특수성은 노동자 주체성이라는 내적 요인에 근거한 것이지만, 장편수기 외에도 다양한 문예 양식과의 접합을 통해 문학적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노동자 생활글이 아마추어-비정형이라는 부정적 의미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글쓰기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생활글의 특수성이 문학 장르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비록 가진 것 적어도』,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등의 생활글 모음집이 시와 산문을 적절히 활용한 편집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실제 글쓰기에서 기존의 문학적 규범은 유효했다. 생활글 쓰기에서 본격적인 문

10)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6 참조.

11) 1990년대 이후 노동운동과 노동문학의 이념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전국에 산재한 노동자 문학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노동자 글쓰기 공간도 급격히 축소된다.

학 창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성향 때문이다.

1980년대 등장한 여러 노동문학이 문학 장르의 규범 속에서 생산된 사실은 노동문학의 문학성이 장르적 속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자의 문학적 글쓰기를 소설 혹은 수기로 판정하는 비평적 관점은 임의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공장의 불빛』의 저자 석정남이 발표한 작품에 관한 양식적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텍스트 자체의 형식이 소설 범주를 벗어난다고 판단 내리기는 어렵다.¹²⁾ 그리고 노동자 문학의 운동성이 문학 일반의 교양적 요구-예컨대 문장의 수준이나 구성의 기본 원칙들-와 대치를 이루지 않았음을 볼 때,¹³⁾ 문학적 보편성이 노동-문학의 투쟁의 방향과 보족적인 위치에서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생활글을 바라보는 관점은 갱신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는 생활글과 시, 소설을 포함한 노동자 글쓰기를 대상으로 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와 노동자 글쓰기의 담론적 특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노동자 생활글의 문학성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으로 요약될 것이다. 그 대답으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곤란함이다. 생활글을 포함한 노동자의 글쓰기 행위와 제도는 기성 문학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며 노동문학의 행위는 문학적 기득권을 전취하려는 전략을 취한다. 기존 문학이 초월적인 유토피아였다면 노동자의 생활글 쓰기, 혹은 노동자 문학이 유토피아의 거부를 내적 조건으로 삼는 일은 당연하다. 헤테로토피아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¹⁴⁾

12) 이 두 작품의 장르적 규정에 관해서는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4 참조.

13) 노동자 문학운동이 심화하면서 문예 창작의 전문성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비교적 긴 시간을 지내온 문학회일수록 전문성은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노동자 문예 단체인 구로노동자문학회 역시 창작에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창작 방법론의 전제로 삼는다. 『구로노동자문학회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월간 말』, 1999.6, 25쪽. 이는 구로노동자문학회만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014.2 참조.

그런데 노동자 문학이 기존 문학성에 대응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글쓰기라는 진단은 노동자 글쓰기와 문학성의 관계를 달리한다면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즉 문학성을 둘러싼 대립의 관계가 전적으로 배타적인 문예장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면 논의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글쓰기에 의해 기존의 문학이 폐색되고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이상 헤테로토피아는 불가능하다. 헤테로토피아에 내재한 이질적 문학성은 1980년대의 특수성이 문학사적 보편성을 대체한다는 논리로서, 현실성의 판단이 필요한 명제이다. 1980년대의 문학을 설명할 때, ‘피난지’, ‘망명지’ 등의 수사가 동원되기도 하거니와, 정치적 급변이 문학 내적 논리의 변이를 이끌었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러나 이 시기 문학 양식이 연속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¹⁵⁾ 1980년대 소설은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총체성, 완결성을 위한 모색 중이라는 진단에서 보듯, 당대의 문학 양식은 노동문학을 배태한 원동력이었다. 다시 말해 서사 양식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문학성의 두 지평은 격하게 갈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 소설의 전통적 문학 양식은 노동자 글쓰기 내에서도 중요한 생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문단과 같은 외적 제도의 갱신이 문학 내적 논리의 거부는 아니었던 셈이다.

14) 최근 연구는 노동자 문학이 문학적 유토피아를 재배치하고 현실화된 유토피아의 장소들을 재구축하려는 기획을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노동자 글쓰기는 기존 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글쓰기라는 진단이 그것이다. 배하은, 앞의 논문 4장 참조.

15) 김도연, 『장르확산을 위하여』, 최원식 외,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398-399쪽. 여기에 따르면 1980년대를 시의 시대라 부른 만큼 소설이 시대의 문제를 형상화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베스트셀러 현상들 속에서 소설은 여전히 널리 읽히며 그 와중에 의미 있는 장편소설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체가 곧 단절은 아니라고 본다. 대신 소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시점과 문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며, 허구성에 대한 재고를 통해 르포 등의 주변장르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서사양식의 본질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창작적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한 것이다.

1980년대 노동자 문학과 기존 문학의 격차가 강조될 경우, 생활글은 물론 노동자 글쓰기 전체를 미완, 혹은 미달의 존재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후술할 석정남의 소설의 경우, 여성 주인공이 남성적 서사와의 거리를 자각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평가¹⁶⁾는 여성 주체를 남성 노동운동가의 타자로 한정시켰다는 문제와 더불어, 여성-노동자 글쓰기 양식을 전형적 문학의 외부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글쓰기와 문학 제도와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는 노동자의 문학적 주체성(authorship) 획득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글 쓰는 노동자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문학과 뚜렷이 구분되는 노동운동 이념의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 엘리트 문학이 개별적이며 파편화된 근대적 개인의 주체성이라면, 노동자 문학의 주체성은 노동이라는 대의를 위한 집단적 주체성을 띤다고 평가받는다.¹⁷⁾ 그렇지만 집단성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문학/문화 양식은 기존 문학의 반성 위에 제출되었지만, 두 양식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새로운 문학 양식이 혁명적 제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전환되어 양식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은 참조할 만하다.¹⁸⁾ 르포, 회고, 수기 등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16) 오자은, 앞의 논문, 4장.

17) 김원은 여공의 서사가 개인의 주체성이 아니라 일종의 “일종의 집단전기”라고 말한다. 김원, 『여공 1970』, 이매진, 2006, 112쪽. 개인의 서사이되 서술로서는 개인의 주체성이 아닌 집단적 문학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천정환도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노동소설에서 문학적 주체의 내면은 개인의 울타리를 해체하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이를 집단적 내면으로 규정했다. 천정환,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8. 이는 한국 문학에서 일반화된 문학의 근대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에서 르포, 논픽션 등 사실성에 기초한 새로운 문학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기존 문학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68혁명’의 흐름과 같이한다. 이때 문학적 혁신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쓰기는 사회운동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지만, 그 운동성이 전환된 지점에는 기존의 문학적, 문화적 양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1980년대의 경우를 비춰보는 데 참고가 된다. 노동자 글쓰기를 노동문학으로 전유하는 작업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노동자 수기는 적극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르러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우리가 우리에게』 등의 생활글 모음집이나, 『공장의 불빛』, 『빼앗긴 일터』 등의 장편수기로 출간되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1980년대 후반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본격 노동소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수기의 발굴에서 출간까지의 10여 년의 역사는 집단화의 성격을 띠지만 그것이 노동자 주체성의 전부는 아니다. 이 시기 글쓰기에도 문학성은 온존해 있었으며, 투쟁의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양식화의 문제로 돌출되었다. 이때 노동자 글쓰기의 전문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객관적 현실과 운동의 전환 과정에서 문화적 양식의 변화는 변증법적인 필연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였다. 생활글과 그 인접 양식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수행적 효과를 발휘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만화와 같은 대중문화 양식의 효용에 대해서도 고려되었다.¹⁹⁾ 따라서 생활글의 모음집-생활글 자체가 아니라-에서 발견되는 집단적 성격을 노

변화한다. 현실적 위기가 해소될 경우 운동으로서의 혁신성은 문화운동, 문예 양식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68혁명의 문화적 성격은 오제명 외,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길, 2006 참조. 특히 일본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데, 50년대의 위기가 60년대의 운동성으로 전환되는 사이, 정치적 상황변화는 새로운 문화적 주체로서 시민을 호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서동주, 『1950년대 ‘기록운동’과 ‘기지일본’의 표상』, 『일본사상』 25, 한국일본사상학회, 2013. 12, 小熊英二, 『〈民主〉と〈愛國〉—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참조.

- 19) 이념 중심의 문학론에서 대중문화의 취사선택은 진지전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만화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 효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끌었다. 실제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에서 펴낸 무크지에는 ‘민중적’ 만화가 실리기도 했다. 만화와 관련된 논의는 장성규,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 문학예술운동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2 참조.

동자 문학과 노동자 문학의 주체성의 지향적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겠다. 특히 노동자 생활글이 쇠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노동자 생활글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인 문학이라는 큰 지평과의 관계 속에서 문학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선적인 길항관계와 변증법적 지양을 확인하는 대신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자 생활글을 투쟁의 산물이자 기존 문학과와의 단절로 보지 않고, 투쟁인 동시에 여전히 ‘문학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내적 논리와 동력을 검출해 낼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상위 장르의 교체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하위 장르의 다양화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자가 생활글을 쓰는 행위가 배타적 장르 규범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장르, 글쓰기의 양식, 규범과 교호하며 형성된 새로운 글쓰기의 장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3. 생활글의 문학적 확장

1) 세련된 글쓰기와 노동자

노동자가 쓴 생활글은 온전한 양식 규범으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 이러한 특이성은 형식적 혼종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글의 내적 요소에 외부와의 접속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외부의 문학적, 문화적 양식과의 접속을 통해서 생활글은 성립되며 그 때문에 주체성과 문학적 실천 사이의 혼란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자 생활글의 외부를 탐색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 노동자 생활글 쓰기의 지층의 복수화를 통해 문학사적 층위를 쌓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동자 생활글에 관련된 고정관념을 검토해보자. 생

활글 모음집에서는 노동자의 글은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강조된다.²⁰⁾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시민, 소시민 문학과 구분되는 ‘노동자적 주체성’의 근거이다.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현실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면 노동자 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평가된다.²¹⁾ 이때 노동자 주체성과 현실이 노동문학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된 것에 비해 형식의 문제는 노동문학의 변별적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글을 발굴한 매체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1970년대의 『대화』나 1980년대의 단행본 출간은 운동성이나 이념을 표나게 내세웠고 그것이 생활글, 수기의 발굴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가 진행되면서 언어와 형식에서 세련미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일기가 장편수기로, 다시 소설로 나아간 것처럼, 정형화된 문예 양식과 세련된 언어로 노동자의 주체성과 현실을 드러내는 글쓰기는 노동문학의 조건 속에서도 가능했다.

노동자 글쓰기의 이념적 순수성이 양식적 세련과 접속한 사례로 『뿌리깊은 나무』의 수기를 들 수 있다. 『뿌리깊은 나무』는 편집자의 영향력이 큰 매체이다. 편집 디자인을 넘어 기사의 문체와 어휘, 나아가 기사의 형식에도 편집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다.²²⁾ 이는 전문 문필가의 글뿐만 아니라 독자 수기나 투고 원고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숨어사는 외톨박이>, <털어놓고 하는 말>, <이런 일이 있었다> 등은 평범한 이들의 삶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잡지가 지향해온 민중이라는 키워드를 부각시키는 연재물이다. 그 중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문필자의 취재나 기고가 아닌 독자 투고란인데, 여기에 노동 현장과 일상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하층 노동자의 글들이 실린다. <이런 일이 있었다>의 노동자

20) 모음집의 선정 기준은 “일정한 문예적 가치”(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43쪽)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여건상 소박하고 짝막하다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나보순 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돌베개, 1983, 7쪽)

21)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4-5쪽.

22) 강운구 외,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참조.

필자는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리얼리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생활글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뿌리깊은 나무』의 민중 지향성은 노동 현장의 고발을 통해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외견상 세련된 글솜씨가 두드러진다. 이는 전형적인 노동자 수기와는 차이가 큰데, 이는 편집과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²³⁾ 1970년대 수기와 일기 등의 노동자 글쓰기는 현장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투쟁 과정과 분노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혹은 ‘모범근로자’의 감상적인 수기는 특유의 구술적 문체를 통해 타자화된 노동자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²⁴⁾ 그에 비하면 『뿌리깊은 나무』의 글은 세련된 어휘나 문체, 그리고 글 전체 구성의 완성도에서 소박한 노동자 글쓰기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이는 『뿌리깊은 나무』가 견지한 편집 방향의 산물은 전문적인 논픽션 작가를 지향한 『신동아』 논픽션에 견줄 만하다. 『버스 계수원으로 겪은 짐승 생활』(1978.3), 『나는 오년 된 실뿔는 기계』(1978.6), 『우리 회사 뒷간의 낙서』(1979.2), 『눈먼 춘미를 위하여』(1979.3)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에 출간된 생활글은 ‘수집’²⁵⁾의 대상이었다. 이 수집은 편집자의 특정한 의도의 결과이지만 생활글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기록이라는 점은 부정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특별한 수정이 더해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깊은 나무』의 경우 필자가 먼저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세운다. 각각의 글은 간략한 필자소개가 부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필자로서의 지적 수준이다. “이년 팔개월 때 마산에 있는 코리아 타코마 회사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마산

23) <숨어사는 외톨박이>는 전문필자가 외톨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 취재한 기사로, 기자의 목소리보다 당사자의 구술적 발화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징은 『뿌리깊은 나무』의 후신인 『샘이깊은 물』의 <평생토록 못 잇을 일>을 통해 본격적인 구술 채록으로 이어졌다.

24) 김성환,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8 참조.

25)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5쪽.

공업 고등학교에 다닌다.”²⁶⁾ “오년 동안 일한 숙련된 기술자다. 그가 요즘 받는 월급은 삼만구천원이다. 오년 동안 쥐꼬리만한 돈으로 그의 남동생을 가르쳐서 올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고 대견스러워한다.”²⁷⁾ “열여섯살 때에 가출하여 버스 계수원이 되었다. 지금은 학생으로 한국 대학 신문 연구회 대표이다.”²⁸⁾ 등의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글쓰기 능력을 암시하는 언설이다. 이는 숙련공으로서 글의 주제인 노동 과정을 종합적으로 인식,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노동의 현장을 벗어나 일정한 학력 수준에서 비롯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자신을 글쓰기 주체로 자각하며 일정한 형식적 완성도에 이른다. 어휘와 문장의 표현뿐 아니라 생애사적 구술이 아닌, 사건 중심의 구성이 가진 장점은 노동조건과 노동착취라는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셈이다.²⁹⁾

노동자 글쓰기 공간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수기가 놓인 좌표는 어디쯤일까. 글의 소재와 주제 의식, 그리고 언어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 수기들은 노동운동 과정에서 출간된 소박한 생활글과 장편수기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 글쓰기가 확장되는 운동의 방향을 고려한다면, 수기의 좌표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문제의 세련미 이상의 조건을 따져야 한다. 즉 노동의 주체가 노동 문제를 자각하고, 글쓰기 행위를 의식적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일기가 장편 수기로, 다시 본격 소설 쓰기로 나아간 것과 같이 『뿌리깊은 나무』의 수기는 노동운동의 힘과 방향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기 자체로 노동자 글쓰기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각성한(혹은 지적 능력이 충분한) 노동자의 글쓰기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의식을 선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26) 손춘섭, 「눈먼 춘미를 위하여」, 『뿌리깊은 나무』, 1979.3, 146쪽.

27) 정연숙, 「나는 오년 된 실뽕는 기계」, 『뿌리깊은 나무』, 1978.6, 153쪽.

28) 홍준현, 「버스 계수원으로 겪은 김승 생활」, 『뿌리깊은 나무』, 1978.3, 166쪽.

29) 노동운동가 수기와 모범근로자 수기의 비교 분석에 관해서는 김성환, 앞의 논문 참조.

글쓰기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세련된 생활글-수기의 진보적 방향성이었다.

뒷간의 낙서에 대한 시비가 있고 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내 주위의 현장 기능공들이 가진 기능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보기도 했다. 그것들은 어떤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능공 곧 내가 근무하는 ㄷ기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능공들의 불만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그러고 났더니 선배들이나 우리의 불만이 관리직 요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비록 하찮은 불만이라도 그것은 자기 방어에 한 수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낙서는 어떤 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닐까? 나는 나와 동료들이 서 있는 땅 곧 기능공의 현실에 대해 검토할 의무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기에 이르렀다.³⁰⁾

숙련 기능공인 필자가 낙서에 부여한 의미는 이와 같다. 노동자들의 낙서란 자본의 횡포에 맞선 정당방위의 수단이자,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저항의 글쓰기이다. 그리고 낙서는 ‘관리직 요원’이 아닌 현장 기능공들만의 것으로, 낙서를 통해 고유한 노동자 계급성을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그러므로 수기의 지면을 빌려 낙서를 채록하는 작업은 노동자 계급성 인식을 위한 글쓰기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수기의 필자가 낙서의 주체가 아니라 낙서를 분석,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정당방위라는 낙서의 의의는 수기를 통해 발견되고, 이념적 가치를 부여받기에 낙서를 서술하는 필자의 위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수기 쓰기는 현실을 객관화하고 전체 노동자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자기지시적 글쓰기이다.³¹⁾ 따라서 수기는 낙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직조된다. 낙서에서처럼

30) 이교일, 『우리 회사 뒷간의 낙서』, 『뿌리깊은 나무』, 1979.2, 117쪽.

31) 자기지시적(self reference)이란 객관적 대상을 자기관찰의 인식방법론을 의미한다. 노동자의 수기는 노동현실에 관해 말하면서도, 글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노동자의 자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기 쓰기는 노동자 계급성을 증명하는 행위인 만큼 정체성 논의는 객관적 방법론을 거쳐야 했다. 그 방법론 중 하나가 설문과 인터뷰를 포함하는 객관적 조사이다. ‘일급 628원’인 필자는 저임금 관련 기사를 접한 후 자신이 속한 노동 현장을 조사한다. 그는 ‘ㄱ기계’회사의 기능공 153명의 임금분포를 직접 작성하여 분석했으며, 동료 인터뷰를 통해 실제 삶에서 저임금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조사는 ‘일급 3,367원을 받는 서른다섯 살 난 가장’의 가계를 보여주는가 하면, 회사의 비리를 알고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스물여섯 살 동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스물세 살 난 기능공의 부당대우를 폭로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이처럼 객관적 조사의 방법론은 현실을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이자 글쓰기의 원동력이었다.

조사를 통한 글쓰기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방법론으로 부각된 첫 번째 사례는 전태일의 글쓰기이다. 전태일이 현장 조사와 설문을 열악한 노동현실을 객관화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운동의 목표를 설정한 과정은 그의 수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전태일 이후, 객관적 조사의 결과물을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글쓰기 한 방법론으로 정착되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매체로 석정남과 유동우의 수기를 발굴한 『대화』를 꼽을 수 있다. 발행기관인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중간집단 교육을 통해 진보적 변화를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가 요구되었으며, 조사의 결과는 『대화』에 수록되어 노동운동 담론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도 볼 수 있다. 허구의 서사 속 삽입된 조사 내용의 실제성은 비판적 리얼리티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글쓰기는 과학적 담론 영역을 넘어서 수기, 소

자각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이라 할 수 있다. 장춘익, 『‘자기지시적 체계’에서 ‘자기지시Selbstreferenz’란 무엇을 뜻하는가?: 루만의 이론의 한 핵심어에 대하여』, 『철학연구』 107, 철학연구회, 2014.12 참조.

설 같은 문예 양식에 활용되었던 만큼, 노동자 글쓰기의 공간에서 상호 장르적인 현실 재현 방식이었다.³²⁾

적극적인 글쓰기 방법론에는 문장의 수준도 포함된다. 자연발생적 구술을 넘어서는 세련된 문장은 노동자 리터러시(literacy)의 필수적 기재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지적 능력-리터러시를 형성하고 이를 다시 노동계급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것은 적확하고 세련된 언어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평 속에서 생활글은 노동문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 회사 뒷간의 낙서』는 낙서라는 단순한 저항에서 노동운동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글쓰기로 나아가는 기획의 사례로 꿈을 만하다. 필자는 글의 마지막에서 글쓰기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진술한다.

여러분의 사소한 불평 불만이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장의 연설은 여기서 끝났다. 결론은, 우리에게 소크라테스가 되어 달라는 말인 셈이었다. 기업 성장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달게 독배를 들라는 말이었다. 기업주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가고 기능공의 불안은 더해 가는데도?

얼마 뒤에 뒷간 벽의 낙서는 청소부 아저씨의 손으로 말끔히 지워졌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새로 단장된 흰 벽에 새로운 그림과 글씨들이 나타나 있었다. “사장님, 저희 낙서판을 새로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를 위시해서, 그와 비슷한 낙서들이 즐비하게 써어 있었다. 입에

32) 『대화』는 애초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의 성과를 수록하는 기관지의 역할이었지만 1976년 11월 혁신호 이후 종합잡지로 체제를 전환한다. 대화모임의 핵심 중 하나는 중간집단 교육으로, 그 성과는 『대화』를 통해 공론화했다. 중간집단 교육은 계층을 뛰어넘는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 분석,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이후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르포와 수기, 그리고 소설에서도 원용되었다. 『대화』를 중간집단 교육에 관해서는 배하은 앞의 논문 참조.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이념적 성향에 관해서는 김건우, 『한국 현대지성사에서 '한신(韓神)'이 가지는 의미』,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10 참조.

담기조차 어려운 욕들, 여자의 벗은 몸, 남자의 아랫도리 - 그 속에서 나는 그야말로 “철학적인” 낙서를 발견했다. “사장네 개만도 못한 우리 는 뭐냐? 사장네 개는 금니빨 해 넣었다더라.”³³⁾

낙서는 불만을 드러내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 인식을 위한 사유의 공간이 된다. 필자는 풍자적 표현과 더불어 사장네 개와 노동자를 비교하는 ‘철학적’ 인식에까지 이른 흔적을 낙서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는 사장과 노동자의 계급 차이에 관한 인식으로, 투쟁의 방향을 내포한 사유의 결과이다. 이 지점에 이르러 낙서 쓰기는 노동자를 위한 지적 능력, 즉 리터러시의 근거가 된다. 노동자 리터러시는 관념적 지식의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서의 구절처럼 현실을 효과적으로 재현해 내는 문학적 능력에 의해 가능하다. 투쟁의 이념을 직접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이를 글로써 풀어낼 수 있는 지적, 문화적 수준은 노동자 문학의 전제이다.³⁴⁾

『우리 회사 뒷간의 낙서』는 노동자 문학의 전제인 노동자 리터러시를 발견하는 동시에 필자의 글쓰기 역시 동일한 문학적 지평에 놓여 있음을 확인한 작품이다. 즉 노동자 생활글이란 주체와 대상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수행되는 자기지시적 글쓰기라는 사실을 스스로 실증한 것이다. 『대화』에 실린 『버스 계수원으로 겪은 짐승 생활』, 『눈먼 춘미를 위하여』 등의 동일한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이들 수기는 평범한 생활글이 노동자 리터러시의 형성을 위한 문학적 양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눈먼 누이를 위해 애쓰는 소년 노동자의 안타까움, 버스 계수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한 분노 등은 노동운동의 기표를 내세우지 않고도 현실에 대한 견고한 인식과 효과적인 언어적 재현을 통해 노동자의 심성을 완성도 있게 형상화하였다.

33) 『우리 회사 뒷간의 낙서』, 123쪽.

34) 이와 같은 특징은 발행인 한창기와 그의 문화적 감각의 산물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필자의 의도와 주제의식을 왜곡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글쓰기 양식은 이후 등장한 여러 형식의 노동자 글쓰기와 겹치지만 노동문학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전면화되지 못했다. 1980년대의 장편 수기에서 텍스트에 내재한 운동성과 무관하게, 지식인(의 문학성)의 영향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고 전통적 문학 관습은 일종의 장애로 평가받았다.³⁵⁾ 그만큼 노동자 글쓰기의 형식적 세련과 그 속의 교양 수준은 개별적인 실천이 아니라 노동자 글쓰기 전체의 층위에서 자리매김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문예 양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여공의 소설쓰기

『공장의 불빛』의 저자 석정남이 남긴 소설은 두 편이다. 노동운동의 전력으로 인해 해고의 위기에 놓인 옥순의 이야기를 담은 『장벽』과 그 후 주부가 된 옥순이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동료들 지켜보는 과정과 내면을 담은 『불신시대』가 그것이다. 두 작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문장과 구성의 수준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필자의 삶이 어느 정도 알려진 탓에 실제 사건과의 유사성이 부각되어 소설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런 평가는 특히 첫 작품 『장벽』에 집중되었다. 소설 속 ‘ㄸ방직’의 과거는 필자가 실제 경험한 동일방직의 투쟁 과정과 연결되어 주인공 옥순은 저자와 동일시된다. 그 때문에 『장벽』은 ‘굳이 소설이라는 장르 명칭’이 부여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이며³⁶⁾ 텍스트 분석 대

35) 루스 배러클러프는 1980년대 여공수기 중에서 『서울로 가는 길』(1982)이 『공장의 불빛』(1984), 『빼앗긴 일터』(1984)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을 분석한다. 당시 『서울로 가는 길』은 가장 인기 있었지만, 특유의 감수성으로 인해 ‘노동계급관 눈물 짜내는 이야기’(루스 배러클러프,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 비평』, 2005.봄, 310쪽)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배러클러프는 『서울로 가는 길』이 기존의 문학적 관례에 더 부합했으며 이로 인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루스 배러클러프, 김원, 노지승 역,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273쪽.

36) 장성규, 『1980년대 논픽션 양상과 소설 개념의 재편과정 연구』, 68-69쪽.

신 소설로 불리게 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될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장벽』이 과연 소설을 빙자한 수기에 지나지 않은지, 소설이라 이름 붙인 것은 의도적인 오기였는지 등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작품의 소설적 자질을 살펴봐야 할 터이다. 이 작품은 구직자 옥순과 옥순의 과거를 캐내려는 적대자, 그리고 과거가 밝혀지고 해고의 위기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흐름에 의해 갈등이 증폭되는 구성이다. 그리고 갈등이 고조된 지점에서 동료들의 투쟁 의지에 힘입어 건설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결말에 다다른다. 이런 흐름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매우 긴밀하고 긴박하게 구성된다. 고단한 구직활동의 묘사에서 긴장이 시작되어, 해고 위기의 긴박한 순간에서 절정을 맞이함으로써 단편소설이 갖추어야 할 구성상의 일관성을 갖추었다. 옥순의 과거가 구직활동 중에 플래시백으로 처리된 것도 일관성에 적절히 기여한다.

『장벽』이 긴장을 구조화하기 위해 택한 것은 초점화자의 복수화이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된 현실과 구직에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노동운동의 강한 신념을 드러내는 선자와의 만남으로 구성된다. 여기까지의 서술은 옥순에 초점을 맞춰 노동운동에 전념하는 여성 노동자의 고단한 내면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다 5장에서는 옥순을 블랙리스트에서 발견하고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적대적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 작가는 옥순의 정보를 건네주는 공장장과 이에 놀라는 정과장의 대화를 극화하여 보여준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적대세력의 정체가 폭로되고, 억압이 실행되는 구조가 선명해진다. 정과장은 스물 세 살짜리 “애송이”, “계집아이”³⁷⁾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회사와 국가를 위

37) 석정남, 『장벽』, 자유실천문인협회의 편, 『노동의 문학 문학의 새벽』, 이삭, 1985, 143-144쪽. 정과장은 공장장 앞에서 옥순을 ‘계집아이’로 지칭한 것이 적절치 못했다고 자책한다. 이런 태도는 옥순과 같은 평범한 여공에 대한 소시민의 일상적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인식과 그녀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세력의 폭력과의 괴리를 드러낸다.

해 이를 공장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더구나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성실한 근무 태도로 위장할 만큼 독하고 용의주도한 계집아이가 아닌가. 아니 저 계집아이가 칼반지나 독침을 가지고 있거나 말거나 공산주의자이거나 말거나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 아이의 신분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이미 관계당국의 정확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자기로서는 관계당국의 증거자료를 인정할 자유와 그것을 근거로 회사문제를 해결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³⁸⁾

이때 서술은 억압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정과장의 내적 갈등을 전경화한다. 이 장면을 통해 권력은 블랙리스트의 진위와 상관없이 명령 내리며, 정과장과 같이 나약한 소시민 중간관리자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이 밝혀진다. 그리고 폭력에 비례하여 노동운동의 당위성도 강화된다. 부당한 명령과 더불어 옥순이 ‘독침과 칼반지를 들고 다니는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혼란을 겪는 정과장의 순진한 모습은 권력의 책략을 희화화하는 효과도 가진다. 5장 서술의 초점은 노동탄압의 방식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주며, 그 기원에 거대한 독재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옥순의 적극적인 태도와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이와 같은 극적 효과는 6장의 서술에서도 볼 수 있다. 6장은 옥순이 관리인에게 불려간 후 반장과 동료 노동자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순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은희의 초점이 두드러진다. 반장은 옥희가 간첩이라는 공장장의 통보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은희는 옥순이 불려간 이유를 짐작하고서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그녀의 저항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라는 발화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옥희의 해고는 노동 탄압이며,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이에 대한 갈등은 소설의 말미,

38) 『장벽』, 148쪽.

“장벽”이라는 말로 상징화된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강건너 불보듯 옥순의 해고를 구경만 할 수 없다는 것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움이 된다면 그녀의 친구 선자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그 누구라도 만나보고 싶었다. 노조대의원이며 상집간부이기도 했다는 선자와 의논한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았다. 운명 지어진 자기 삶의 한계와 투쟁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다행한 일은 없겠으나 만약 협조를 얻지 못한다 해도 좋았다.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하는 거다!” 하고 다짐하는 은희의 불끈 쥐어진 두 주먹을 부르르 떨려왔다.

순간, 장벽은 이미 장벽이 아니었다. ³⁹⁾

『장벽』의 마지막 장면은 노동문학으로서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낸다. 선자-옥순이라는 선배 운동가와 이로부터 감화를 받아 노동운동에 나서는 은희 사이의 수직적인 영향 관계, 그리고 노동운동에 투신한 은희의 각오와 긍정적인 전망이 그것이다. 이 둘은 노동자 계급성에서 필수적인 요건으로 『장벽』의 인물관계와 갈등은 계급성의 전망을 드러내는 서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 노동자 계급성은 노동문학의 창작방법론이자 규범이었다.

그런데 『장벽』은 여기에 노동문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노동운동 상위조직에 대한 믿음을 덧붙인다. 세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선자는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이다. 이는 활동의 양이나 열의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다. 동료로부터 보장받는 선도성은 노조대의원, 상집간부라는 직책에서 비롯된다. 노조는 정치적, 계급적 이해에 근거한 조직으로, 노조 당파성의 선명한 형상화는 노동문학의 리얼리티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었다.⁴⁰⁾ 사실 『장벽』은 200매의 분량 내에서 초점화자를 자주 변경

39) 『장벽』, 151쪽.

40) 당파성의 측면에서 볼 경우, 옥순과 선자 등 선진 노동운동가의 인물성은 1980년대 전형적인 남성-활동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여성 주체로서의 특이성

함으로써 집중력을 떨어트릴 약점을 안고 있는 서사이다. 그러나 복수의 초점을 통해 노동문학의 전형적인 인물을 형상화하고 이념적 요건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만큼 양식상의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술 방식의 변화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 것은 작가가 소설적 의장을 효과적으로 발휘한 창작 의식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소설 양식 내에서 창조적 작가성이 발휘된 결과이다.

석정남의 작가성은 3년 후 『불신시대』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전작 『장벽』의 배경을 이어받은 옥순은 해고 이후 아이 하나를 둔 전업주부이다. 그녀는 현장을 떠났지만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은 여전할 뿐 아니라 선자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권력의 억압은 더욱 강화되었다. 선자와 그 동료 인숙은 기관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어 옥순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옥순 역시 불순분자를 가려내는 반상회에 참여하며 권력의 억압이 조직화, 일상화된 현실과 마주한다.

『불신시대』에서는 노동운동에 가해진 탄압의 실제와 노동운동가의 내면이 전작에 비해 더욱 짙게 묘사된다. 이 작품에서 노동운동은 상투적인 투쟁의 열의나 관념적인 언설에 있지 않다. 오히려 현장을 떠난 옥순의 일상을 통해 권력과 저항의 문제를 상기시킨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옥순은 반상회 조직에서 노동운동가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권력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동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가족관계 속에서 재확인한다. 일상의 층위에서 노동운동과 권력의 갈등을 경험하였기에 그녀의 내면은 더욱 현실적이다. 선자를 비롯한 선진 운동가들이 억압적 기구로부터 탄압받는다면, 옥순과 그의 가족은 일상의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기구로부터 감시받는다. 옥순은 사찰의 시선이 자기에게도 미치게 되자,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불안이며, 옥순이 건네준 『노동의 새벽』이 불심검문에

이나, 1970년대 이후 제기된 노동조직 내에서의 억압적인 성차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벽』을 여성-노동자의 서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걸려 고초를 겪는 남편의 분노 섞인 불편함이다.

일상적 억압을 통해 『불신시대』는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대변한다.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장 조직만이 아니다. 공장을 떠나 가정주부가 되었음에도 억압의 시선과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자체야말로 권력의 본질임을 옥순은 깨닫는다. 옥순 자신이 이른바 ‘불순분자의 꼬나풀’임에도 반상회에서 주민신고원으로 임명되는 아이러니는 노동운동의 곤란함을 우화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옥순의 내적 갈등은 노동운동의 전망으로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선자는 옥순을 찾아와 연락책 역할을 부탁하며 잠적계획을 밝힌다. 그리고 옥순은 어찌할 줄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듯 서있다. 표면적으로 갈등은 노동운동에 탄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은 경찰과 반상회 같은 국가기구가 과시하는 물리적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억압의 실체를 가족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체험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에 재투신하는 일은 가족 내의 내밀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음을 옥순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불안에 관한 성찰은 가족을 포함한 일상으로 향한다.

옥순은 남편이 미웠다. 아무나 붙잡고 불심검문을 하는 쪽도 미웠고, 죄 지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불심검문에 응하는 쪽도 미웠다. 그리고 인숙이 같이 젊은이들이 왜 숨어다녀야 하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미웠다.⁴¹⁾

그녀의 내면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분노는 오히려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과 이웃으로 향한다. 옥순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그녀의 가족은 노동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든 청년이 경찰에 쫓겨 도주하자 보증금 50만 원이 자신의 것이 됐다며 기뻐하는 속물이 이웃이다. 옥순의 가족과 이웃은 이데올로기적 왜곡에 무방비로

41) 석정남, 『불신시대』, 박현채, 박노해 외, 『노동문학』, 실천문학사, 1988, 316쪽.

놓여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 이익을 쫓는 소시민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옥순 또한 소시민에 포함되어 있기에 세상에 대한 분노는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소시민의 현실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불신시대』는 주제 의식과 형상화에서 『장벽』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장벽』이 공장장과 여공의 대립을 통해 적대세력을 직접 드러냈다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소시민의 내면을 통해 일상에 드리운 억압의 구조에 관한 성찰에 이른다. 이는 1980년대 노동소설의 전형에서 비껴있는 것이다. 옥순은 남성-투쟁가도 아니며,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도 선명하지 않다. 이러한 옥순의 서사는 노동소설의 주류는 아니다. 그러나 예외성 자체가 노동소설의 역사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류 노동운동에서 소외된 여성의 내면과 현실을 통해 1980년대 후반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 지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⁴²⁾ 이 주제 의식은 작가가 기획한 소설 양식 속에서 효과적으로 형상화된 만큼 문학적 성취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문학적 성취라 함은 전형적인 노동문학, 혹은 엘리트 문학과와의 비교를 통해 계량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⁴³⁾ 혹은 한 여성 노동자가 소설 쓰기에 이르렀다는 개인적 성취도 아니다. 노동자 글쓰기가 생활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작되었지만, 양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소설이라는 문학 공간으로 확장된 사실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생활글에 관한 논의는 확장의 방향과 장르 간의 관계 양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여공이 운동가로 나선 체험의 특이성이 글쓰기를 추동했다면, 현실의 요구는 생활글에서 문학 양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알몸투쟁을 증언하기 위한 일기가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42) 옥순의 존재는 투쟁의 이념 대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적 존재가 된다는 것의 (불)가능성”을 묻는 여성 주체로서 의미가 강하다. 오자은, 앞의 논문, 44쪽.

43) 빼어난 소설로 보기에 두 작품의 미흡함은 뚜렷하다. 『장벽』의 경우 인물의 대립은 단선적이며, 회상장면의 플래시백 서술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불신시대』에서는 이런 면모는 보이지 않지만 문장의 표현은 다소 거칠다. 시아버지 강노인은 3인칭 인물의 서술로 일관되지만, 초점화자가 옥순이라는 점에서 인물 묘사에 서툰 점이 눈에 띈다.

방향을 제시하는 장편수기로 전환된 원동력은 다시 소설이라는 문학적 창조성, 작가적 주체성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경화된 계급성이라는 주제로 인해 작품 자체가 기성문학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 석정남의 소설은 본격소설과의 낙차를 배타적 문학 담론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설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 기존 노동소설이 보여주지 못했던 여공의 내면과 일상화된 억압 체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제출된 『장벽』, 『불신시대』 두 편의 소설은 여공의 글쓰기가 문학 양식 속에서 확장된 증거라 할 수 있다. 노동현실과 투쟁의 방향을 위해 일기와 수기가 필요했던 만큼, 소설이라는 문학성을 통해서도 여공-노동자-글쓰기라는 이중, 삼중의 주체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포괄하는 것이 노동자 글쓰기의 스펙트럼이자, 노동자 생활글에 내재한 운동의 방향성이었다.

4. 1990년대 생활글의 변화: 전태일 문학상과 생활글

1980년대 담론의 중심에 있었던 노동문제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식적 동력을 잃는다. 이른바 이념이 상실된 시대의 모호성이 논의의 열기를 흡수했으며, 노동자 글쓰기의 역사성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동력이 소진된 이후에도 글쓰기 양식은 대중매체와 접촉하여 대중적 문예장과 노동자 생활글이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역시 노동자 리터러시의 확장 방향 중 하나일 것이다. 1980년대의 생활글 모음집이나 장편 노동수기의 비정형성은 소멸되었지만 노동자의 글쓰기는 변화한 매체 환경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1960년대 논픽션 공모가 그러했듯, 1990년대에는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기록문 부문은 1980년대 생활글쓰기의 공공성을 이어받은 제도와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⁴⁴⁾

44) 전태일 문학상은 1회부터 시, 소설 등의 문학 부문과 비문학-논픽션 부문을 분

전태일 문학상의 수상작을 보건대, 생활글과 기록문은 범박하게 수기와 르포라는 용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서사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생활글이 비교적 짧은 분량인 것에 비해, 특정 사건의 경위를 서술한 기록문은 상대적으로 길다. 그리고 생활글이 정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기록문은 현장의 사실성을 강조한다. “글쓴이 생각이 조금 덜 들어가고 있는 사실만 썼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⁴⁵⁾이라든가, “생생한 증언이 다른 내용에 비해 부족하다”⁴⁶⁾ 등의 심사평에서 보듯이 기록문은 그 효용이 말 그대로 기록의 영역을 넘지 않는 르포 글쓰기이다. 기록문의 가치는 문학적 표현이나 구성보다 필자가 노동 현장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운동성에 둔다. 『나도 청소노동자다』(23회, 2015) 등과 같이 노동자가 아니라 취재를 위해 현장에 참여한 르포를 제외하면 다수의 필자는 운동의 주체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생활글은 좀 더 문학적이다. 1970-80년대와 같은 생애사적 구술 대신, 특정한 사건을 중심 중심으로 한 서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일상적 경험을 소재로 정서적 표현의 중요성도 커졌다. 그에 따라 노동운동의 현장정보보다는 일상의 진실과 감동을 지향하는 문학적 형식이 생활글 부문의 중심에 자리한다. 예컨대 『장롱』(14회, 2005)은 누군가 내다버린 장롱을 가져오기 위해 고생한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호기심을 유발하는 도입부와 장롱을 들여 넣지 못하고 밤을 지새 갈등과 긴장, 그리고 간신히 처리하고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

리했다. 처음에는 ‘생활글/보고문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후 ‘글쓰기’로 바뀌었다가, 제8회(1998)이후에는 ‘생활글/기록문’으로 정리되었다.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기록문은 노동자 스스로 글쓰기 주체가 되고, 체험을 사회화한다는 점에서 노동문학으로서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초창기인 1980년대 전태일 문학상의 분석에 관해서는 정고은, 『‘전태일’의 이름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 1980년대 전태일문학상의 주체와 양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10 참조.

45) 『심사평』, 『실업일기』,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2001, 243쪽.

46) 『심사평』, 『뽕박질(외)』, 사회평론, 2011, 393쪽.

하는 결말로 구성되어 잘 짜인 수필 또는 장편(掌篇)의 전형을 보여준다. ‘작은 글감을 욕심 없이 풀어 써 삶에 대한 감동을 전해주었다’는 심사평에서도 보듯 생활글은 문학적 재현양식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19회, 2011)는 무작정 상경 이후의 고된 노동, 그리고 귀향이라는 줄거리로 소설에 버금가는 표현과 구성을 갖추었다. 서술은 때로 노동 대신 아버지에 대한 분노에 맞춰지는데, 이때 열일곱 소년의 격정적인 감정이 극적으로 표현된다. “국수를 세 그릇을 먹었지만 나는 아직 배가 고팠고 또 불안했으므로 내 기분을 내세울 처지는 아니었다.”⁴⁷⁾와 같은 문장은 체험의 밀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효과를 낸다. 구성 또한 단순하지 않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로 인해 가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아버지를 향해 슬픔을 치켜들며 분노를 드러내면서 서사는 마무리된다. 주인공의 고난을 강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극적인 결말은 소설에 비견할 만하다.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 부문은 소설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문학 양식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1980년대 노동자 생활글의 기획이 지식인 문학과 차별화된 내용과 형식을 지향했다면,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은 문학적 표현, 혹은 잘 쓰인 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 세련된 문학적 표현 양식은 성찰과 감동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전 겨우 십대였어요. 그 소년은 삼십 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
다.”

한 소년이 삼십 년 동안 오롯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르고 까만 소년, 형형한 눈빛만은 지금의 그와 꼭 닮아 있다. 오십이 넘은 그가 어린 그의 얼굴을 마주한다. 그의 어린 얼굴을 소경이 더듬듯 찬찬히 더듬

47) 곽해룡, 『내가 열일곱 살이었을 때』, 위의 책, 85쪽.

고 있다. 어린 그가 만난 사람들과 그의 감정들을 하나 둘 꺼내 놓는다.
목소리는 어느새 착 가라앉아 있다.⁴⁸⁾

위 인용은 한 인물의 과거를 서술하는 도입부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각 매체의 특징을 차용함으로써 서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기록문의 리얼리티와는 무관한 것으로, 언어 자체의 특징을 강조한 창조적 표현이며, 그래서 다분히 문학적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런 특징은 문학상의 횡수가 거듭될수록 두드러진다.⁴⁹⁾ 1990년대 생활글/기록문이 기록의 사실성과 노동자성이 강조된 것에 비하면, 2000년대 들어서는 감동과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문학적 표현에 강조점을 찍는다. 전태일 문학상이 지향하는 노동자 계급성과 ‘소문자 문학’의 의의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생활글의 교양적 요구와 기대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인식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기 어렵다.

내가 할 일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정제되거나 왜곡된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현실을, 내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이 죽어갈 사람들의 현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라고.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48) 이해정, 『포이동 이야기-아무도 모르는 마을』, 『포이동 이야기(외)』, 사회평론, 2012, 165쪽.

49) 수상작의 성격은 심사자의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까지 생활글은 일상의 작은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서술하는 ‘생활작문’의 비중이 큰 편인데, 심사자 이오덕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오덕은 “사람마다 가장 쓰고 싶은 것,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절실한 삶의 이야기를 쓸 것, 눈으로 보는 듯, 귀로 듣는 듯한 훌륭한 묘사 문장, 그리고 깨끗한 우리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는데(이재관, 『왈왈이들의 합창』 보리, 1997, 5-7쪽) 당선작도 이 기준에 부합한다. 그에 비해 ‘작은책’ 편집위원인 안건모의 경우는 삶의 체험, 사회적 삶에 대한 성찰, 현장의 목소리 등을 강조한다. 2000년대 들어서 소설가들이 심사에 참여한 경우는 비교적 문장과 구성, 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큰 편이다.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느끼는 세상을 가감 없이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새기고 있다. 1년 전, 내게 이야기를 건넸던 그 사람들의 불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겠다고 다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역사가 곧 진실이라고. 그들의 이야기가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삼십년 세월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50)

인용과 같은 인식은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화된 내용이거니와, 취재로써 발견한 소재를 문학적 표현으로써 형상화한 작품 전체의 구성과 비교해서 피상적인 차원에 머문다. 복잡한 수사적 표현이 노동자 리터러시와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외부의 문학과 노동의 사실성 사이에 놓인 생활글의 곤란함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유 모를 불안과 동시에 햄릿만큼의 고민 또한 시작됐다. 지금의 부당한 노동현실을 보고 행동한 것인가(to be) 방임할 것인가(not to be). 나는 요즘 노동자들이 불러낸 유령의 환각에 시달린다. 그 유령이 나에게 속삭인다.

“노동자의 삶을 부정하는 이 노동현실을 바로잡아다오.” 51)

필자는 취재를 위해 청소 노동에 투신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이렇게 서술한다. 그는 ‘햄릿’을 인용하며 고민을 표현하였지만, 인용한 햄릿의 문학과 노동현실이 글 전체에서 하나의 문학성으로 결합지 못한다. 자신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취재의 대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햄릿은 단순한 수사적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취재를 위해 노동을 경험한 수동성의 한계라 할 것이다.

50) 『포이동 이야기 사람들-아무도 모르는 마을』, 203-204쪽.

51) 『나도 청소노동자다』, 『발광생물(외)』, 사회평론, 2015, 88-89쪽.

기록문이 아닌 생활글에서 문학성의 영향은 문제인 채로 남는다. 세련된 문장 형식과 노동의 재현은 자동적으로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태일 문학상의 생활글은 증명하고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 생활글’의 강조점은 ‘생활’에 찍히지만 재현의 문제는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1980년대의 생활글 운동이 쇠퇴한 이후 노동자 글쓰기가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면서 맞닥뜨린 것은 대중매체이다. 재현의 방법론에서 노동자 글쓰기와 대중매체의 글쓰기는 경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 노동자 생활글과 대중적 생활글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유사한 지점에서 조우한다. 제13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 중심으로 단행본을 엮은 『떡볶이 아줌마의 아픈 하루』는 “넋두리⁵²⁾”를 중심으로 한 생활글 모음집이다.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노동자 리터러시의 의미는 발견하기 어렵다. 글쓰기가 노동운동의 공간에서 벗어나 일상적 공간과 대중적 매체에 의탁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⁵³⁾

5. 결론을 대신하여: 노동자 생활글의 새로운 가능성

2000년대 들어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노동자 글쓰기는 동력을 상실한 듯이 보인다. 노동자 생활글은 1980년대만큼 치열한 담론과 접속하지 못했으며, 그 양식이 극적으로 확장되지도 않았다. 노동자 글쓰기가 논의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동이라는 이념의 힘이 컸다. 글쓰기가 노동자 주체성의 중요한 기원이 된 사실도 이념의 힘에서 비롯했다. 이러한 노동 이념이 소진되면서 글쓰기의 매력도 감소한다. 그러나 글쓰

52) 송영애, 『떡볶이 아줌마의 아픈 하루』, 갑을패, 2005, 5쪽.

53) 이는 1990년대 수상작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왈왈이들의 합창』(보리, 1997)은 노동운동가의 감옥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장의 기록문은 아니지만 감옥의 일상과 재판과정의 단상을 중심으로 노동자 문학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

기는 여전히 노동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80년대의 노동운동의 열의가 둘을 연결하는 매개였다면 새로운 세기는 또 다른 매개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980년대 생활글을 탐구한 새로운 글쓰기 양식의 가능성을 일별하는 것을 논의의 마무리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글쓰기의 대중성과 노동자 글쓰기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 글쓰기의 쇠퇴는 노동 담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학의 전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인 문자 매체를 요하는 문학의 위상은 다양한 매체들과의 경합 속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글쓰기를 매개할 수 없을 때 대중성은 노동자와 글쓰기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매개로 등장한다. 그러나 대중적 문예 양식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노동자 생활글은 노동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노동자 글쓰기의 고유성, 즉 노동자 리터러시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으로 노동자 상호 글쓰기를 상정할 수 있다. 한 예로 여성 노동운동가의 체험을 기록한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를 들 수 있다.⁵⁴⁾ 이 책은 노동자의 삶의 서술 방식에서 참조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책은 제시된 일곱 명의 노동자의 삶은 각기 짝지어진 소설가가 서술하는데, 예외가 두 노동자의 대화인 『돌 틈 사이 풀잎처럼』이다. 여기서 『빼앗긴 일터』의 저자 장남수와 동료 노동자는 공통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노동자의 대화는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을 공유하는 학습방식이다. 대화는 또한 연대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생활글을 꾸준히 써온 장남수에게 글쓰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원풍노조에서 운동사와 생애사를 출판한 후 내가 쓴 글을 본 어느 선배가 전화를 했다.

“남수야 네 글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더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

54) 김영주, 김이정 외 공저,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 삶창, 2010.

동자 이야기를 썼는데 노동자인 내가 읽으면서 늘 자존심이 상했어. 그런데 네가 쓴 글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더라.” 필력은 부족할지언정 나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고 누군가 내 글을 칭찬할 때 가장 그분이 좋다.⁵⁵⁾

자존심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가능성을 의미한다. 외부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상호 글쓰기는 재현의 문제에 대한 방법론적 대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하나, 생활글의 확장 방향으로 역사를 상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일상적 글쓰기가 일종의 지식으로서 노동자 역사 쓰기가 되는 것이다. 확장된 노동자 글이 새로운 양식이 되는 시점은 글쓰기 행위와 주체가 전체 노동문학 속에서 차지하는 좌표를 확인할 때이다. 노동에 대한 전망을 통해 확장의 새로운 연결선은 가시화된다. 이 전망에서 포착되는 양식은 노동자의 역사성을 발견하는 글쓰기이다. 노동자 글쓰기의 확장은 노동의 본질과 노동자의 정체성, 역사성 탐구를 목표로 한다. 노동자가 개별 삶의 기원을 역사와 연결시킬 때 노동자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글쓰기는 노동의 사회화에 복무하는, 공적 행위로 고양된다.

노동자 글쓰기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 첫 사례로 우선 전태일을 꼽는다. 그는 글쓰기를 노동운동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인식했으며 지식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지식의 올바른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⁵⁶⁾ 그리고 청계노조를 위시하여 다수의 활동가들이 그에 부응했을 때 노동자 글쓰기의 사회적 영향력도 증명되었다. 특히 ‘대학생 친구’들이 노동 현장에 투신했거니와, 노동자 스스로도 ‘대학생’의 지위에 올라 노동에 관한 학술적 글

55) 장남수, 『작은 꿈』, 『뽕박질(외)』, 사회평론, 2011, 136쪽.

56) 전태일이 남긴 글은 일기와 편지 외에도 다양하다. 단상과 기록, 진정서, 보고서 등이 있으며, 소설 초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태일의 글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라 철학과 사상의 글쓰기로 평가받을 만하다. 조영일, 『전태일 평전』, 전태일기념사업회, 2009 참조.

쓰기를 실천했다는 점은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이는 노동자 글쓰기가 노동 현장에서 학술장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역사화하는 사례로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를 들고자 한다.⁵⁷⁾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이 글은 자기서사의 형식으로, 여성노동자의 주체화 과정에 관한 기록인 동시에 여성 노동자의 역사 쓰기의 한 사례이다. 이 글이 생활글이나 수기와의 다른 점은 석사학위에 있지 않다. 글의 주체가 오히려 주류 노동운동에서 비껴나 있던 ‘시다’, 즉 하급 노동자라는 점이 특별함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글쓰기가 노동자 지식체계[literacy]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밝힌 데 있다. 즉 노동자들은 단순히 문해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배워가며 자신의 노동이 어떤 생산과 연결되며 그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생산의 주인공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발견한다.⁵⁸⁾ 노동자 글쓰기가 노동자 역사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와 같은 발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생활글의 새로운 가능성은 2000년대 들어서 가시화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르포문학, 기록문학 등의 재현양식이 다시금 주목받는 상황에서 생활글의 확장 가능성은 문학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노동자 문학, 혹은 노동자 리터러시라는 큰 지평 내에서 다양한 양식의 관계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글쓰기 양태가 우리 사회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7) 신순애,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 한겨레출판, 2014. 노동자의 자기 역사 쓰기는 201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원은 여성노동자의 자기 역사 쓰기가 트라우마의 치유, 내면의 탐색, 노동의 현재성 등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김원, 『여성들의 자기 역사 쓰기, 또 하나의 실험, 유경순 엮음, 나, 여성 노동자(그린비, 2011)』, 『경제와사회』 90, 비판사회학회, 2011.여름 참조.

58) 신순애, 앞의 책, 4장.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김영주 외,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 삶이보이는창, 2010.
김태숙 외, 『우리가 우리에게』, 돌베개, 1985.
나보순 외,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돌베개, 1983.
박현채, 박노해 외, 『노동문학』, 실천문학사, 1988.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송영애, 『떡볶이 아줌마의 아픈 하루』, 갑을패, 2005.
순점순, 『8시간 노동을 위하여』, 풀빛, 1984.
신순애, 『열세 살 여공의 삶: 한 여성 노동자의 자기역사 쓰기』, 한겨레출판, 2014.
이재관, 『왈왈이들의 합창』 보리, 1997.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편 『노동의 문학 문학의 새벽』, 이삭, 1985.
한윤수 편, 『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 청년사, 1979.
『실업일기』,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책, 2001.
『뽕박질(외)』, 사회평론, 2011.
『뽕박질(외)』, 사회평론, 2011.
『포이동 이야기(외)』, 사회평론, 2012.
『발광생물(외)』, 사회평론, 2015.
『월간 말』, 『창작과비평』.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 물』

2. 논저

- 강운구 외, 『특집! 한창기』, 창비, 2008.

- 공지영, 『의자놀이』, 휴머니스트, 2012.
- 김건우, 「한국 현대지성사에서 ‘한신(韓神)’이 가지는 의미」,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10, 499~532쪽.
-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동서인문학』 45,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12, 31~49쪽.
-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8, 83~104쪽.
- 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신동아』 논픽션 공모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2, 상허학회, 2011.6, 13~61쪽.
- _____,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8, 353~386쪽.
- 김원, 『여공 1970』, 이매진, 2006.
- _____, 「여성들의 자기 역사 쓰기, 또 하나의 실험, 유경순 엮음, 나, 여성 노동자(그린비, 2011)」, 『경제와사회』 90, 비판사회학회, 2011.여름, 395~402쪽.
- 루스 배러클러프,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 비평』, 2005.봄.
- _____, 김원, 노지승 역, 『여공문학: 섹슈얼리티, 폭력 그리고 재현의 문제』, 후마니타스, 2017.
- 배하은, 「흔들리는 종교적, 문학적 유토피아: 1970~198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살펴 본 노동자 장편 수기 연구」,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6, 401~443쪽.
- 서동주, 「1950년대 ‘기록운동’과 ‘기지일본’의 표상」, 『일본사상』 25, 한국일본사상학회, 2013.12, 79~104쪽.
-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 여공 수기와 소설에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37, 한국근대문학회, 2018.4, 7~52쪽.

- 오제명 외, 『68, 세계를 바꾼 문화혁명』, 길, 2006.
- 장성규,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의 전략들: 『노동해방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 44, 한국현대문학회, 2014.12, 631~653쪽.
- _____, 「1980년대 노동자 문집과 서발탄의 자기 재현 전략」, 『민족문학사연구』 50, 2012.12 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3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4, 257~279쪽.
- _____, 「1980년대 논픽션 양식과 소설 개념의 재편과정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54,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4, 63~81쪽.
- _____,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 문학예술운동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상허학회, 2018.2, 61~105쪽.
- 장춘익, 「‘자기지시적 체계’에서 ‘자기지시Selbstreferenz’란 무엇을 뜻하는가?: 루만의 이론의 한 핵심어에 대하여」, 『철학연구』 107, 철학연구회, 2014.12, 141~172쪽.
- 정고은, 「‘전태일’의 이름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 1980년대 전태일문학상의 주체와 양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57, 상허학회, 2019.10, 337~385쪽.
- 조영일, 『전태일 평전』, 전태일기념사업회, 2009.
-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1980~90년대 노동자문학회와 노동자 문학」,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014.2, 173~205쪽.
- _____, 「세기를 건넌 한국 노동소설—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 반교어문학회, 2017.8, 127~170쪽.
- 최원식 외, 『민족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숲, 1989.

Ursula Howard, *Literacy and the Practice of Writing in the 19th Century - A History of the Learning, Uses and Meaning of*

Writing in 19th Century English Communities, Niace, 2012.

小熊英二, 『〈民主〉と〈愛國〉—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Abstract>

The Life-writings of Working Class and the Context of History of the Labor Literature

Kim, Sung-hwan*

The life-writings of working class are a type of the literature of the working class practiced in the category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1980s. The life-writings inherited the laborer's essays in the 1970s, and it was published in a collection of life-writings in the 1980s and played a social role. Although the life-writings, which is part of laborer's literature, was noted as a form that embodies the self-reliance and classiness of working class, and was given the meaning of resistance to the elite-centered literary discourse, discussions on its literary nature were not carried out in earnest in connection with the labor novels.

Since the 1990s, the space for the life-writings has been reduced and discussions on literary nature seem to have stopped. At this time, the life-writings can be isolated as a form of writing movement expressed in a short period of 10 years. In this article, looking at the significance of the life-writings of working class, not the existence of it alone, but the significance of the whole space of the literature of the working class and how it expand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life-writings are bound by the self-regulation of 'simple writing', the writing of working class is carried out in various ways by the direction of the subjectivity and

* Inje University.

class of labor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it can lead to refined writing, and it can be connected to the true novels. This i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wareness of writing and willingness to negotiate actively with literary forms. As a result, the life-writings pioneered the horizon of labor literature and became the source of the analysis of the literacy of working class through the life-long history of the academic world.

With the weakening of the labor movement in the 1990s, the writing of working class also unfolded in a different way, and the life-writings section of the Jeon Tae-il Literary Award(전태일 문학상) shows the aspect well. It can be seen that Jeon Tae-il's writings in literature have already been developed in competition with the mass media, and have spread to formalized and popular writ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dia. As such, the writings of the working class were a form of writing that could be extended in various directions due to the unformatted formality. The life-writings are considered to function as an active literary style experimenting with new writing mode within the category of labor literature.

Key Words : the life-writings of working class, the writings of the working class, labor literature, labor novels, "The Barrier", "An Age of Distrust", Jeon Tae-il Literary Award, the literacy of working class, historical writing of working class

■ 논문접수 : 2020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4일

■ 게재확정 : 2020년 8월 24일